

## [ 종합·해설 ]

# 민주 공천 능장에 지역 민심 사분오열



통합민주당 손학규, 박상천 공동대표가 6일 오후 국회대표실에서 박재승 공심위원장으로부터 1차 공천명단을 넘겨받고 있다. /연합뉴스

## 현역의원, 각종 설·흑색선전 난무 ‘홍역’

## 원외후보, 정책비전 장 마련 안돼 ‘고전’

## 지역민들, 각종 여론조사 공세 시달려

로커들도 조직력이 취약한 원외 예비후보들의 약점을 파고들며 조직 관리 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지역민들도 공천 심사 지연으로 각 후보 측이 실시하는 각종 여론조사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총선 공천이 사실상 여론조사로 결정된다 는 점에서 대부분의 후보가 인지도와 지지도를 견인하기 위해 최소 4~5차례 이상의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 후보 측의 지지 호소와 각종 사무실 개소식, 후원회 참석 요구 등으로 광

주·전남 지역민들은 흑독한 ‘총선 몸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 예비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는 예비후보 흥보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어 오히려 정치적 무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예비 후보들의 정책 비교 등 세밀하고 정확한 공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심위에서 면접과 실사 등을 통해 나름대로 정확한 공천 심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박 쿠데타’ 孫의 득실은?

### ‘공천 혁명’ 총선에 긍정적 효과 기대

### 신계륜 등 핵심 상실 당 수습 과제로

그러나 통합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마땅 편안한 처지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낙마한 신계륜 사무총장은 당내 대표적인 손 대표 지지그룹인 386그룹의 밀형 격이며 설훈·이호웅 전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때 손학규 캠프에서 핵심요직을 맡은 인물들이다.

여기에 김대중(DJ) 전 대통령 측 박지원 비서실장과 DJ 차남인 김홍업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손 대표의 우호그룹으로 꼽혀왔다.

당장 당내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공심위 원장에게 끌려다녔다는 불멘소리와 함께 총선 이후에 두고 보자는 반발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는 공천 배제의 거센 후폭풍을 조기에 수습하고 외부 인사 영입에 나서는 등 총선 체제를 안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 손 대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도권 출마 쪽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됐다. 비리 전력에 휘말린 인사들이 전원 공천 탈락한 미당에 자신만 비례대표로 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권원에서는 이번 공천 파동으로 손 대표가 나름대로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챙겼지만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손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4년 후의 대선 도전 계획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 공천 배제 11인의 거취는

### 박지원·김홍업 ‘무소속’ 장고

### 안희정 “결정 존중” 불출마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공천 심사 배제 원칙에 따라 탈락할 가능성이 커진 11인의 거취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일단 대상자 대부분은 공심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향후 거취를 고민 중이다.

우선 동교동계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홍업 의원은 6일 현재까지 거취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변의 의견을 수렴, 무소속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두 인사 모두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짐작하고 있다.



〈박지원씨〉



〈김홍업씨〉



〈안희정씨〉



〈김민석씨〉

### 신계륜·김민석 “무소속 갈수도 없고”

### 신건 “국회의원 구걸 할 생각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기대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무소속 출마 강행에 따른 부담도 있다. 폐쇄할 경우 돌아온 파장이 본인뿐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미치기 때문이다.

신계륜 당 사무총장, 이상수 전 노동장관, 설훈 전 의원, 이호웅 전 의원, 김민석 전 의원 등도 모두 공심위 결정에 나설면서 양보하는 반응이다. 그렇다고 당장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힘들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들의 무소속 출마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신건 전 국정원장은 이날 “공심위 결정은 막강치 않지만 현재로선 탈당할 생각은 없다. 국회의원하겠다고 구걸할 생각 없다”고 밝혔다.

가장 강하게 무소속 출마 의지를 보인 인사는 이용희 국회부의장, 그는 “당을 떠나더라도 손학규 대표를 위시해 당은 잘해 나가길 바란다.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 하나는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하게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정일 전 의원도 조만간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지만 주변 분위기로 볼 때 무소속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왠만 출신 인사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당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해당 지역구가 해남·진도·완도로 확정돼 가장 인구가 많은 해남 출신인 이 전 의원으로서는 무소속 출마를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전 참여정부 평가포럼 정책위원회장은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전 위원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공심위의 결정이 한 번쯤 다시 검토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재심과 재론을 했음에도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운‘전과’ 공천 심사 대상 제외’라는 결정은 시험 칠 기회미자도 주지 않는 것 이기에 기존의 경선 불복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공천 신청을 냈다가 공천을 못 받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런 수순의 길은 걸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8-2호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팽목항 건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8-61호(2008.10. 21)에 의거 시행하는 진도군 팽목항 건설공사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평생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위치 : 전남 진도군 연동리 일원  
사업의 명칭 : 팽목항 건설공사  
사업의 규모 : 외곽시설 262m, 접안시설 390m, 준설 1,191천㎥, 준설토투기장 조성 2,222㎡, 진입도로를 기반부대시설

사업시행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전남 목포시 옥암동 1101 (전화 061-280-1686)  
보상업무대행자 : 한국농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전화 031-420-3692)

2. 보상기준일 : 2008.10.21(목포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08-61호)

3. 보상대상물건 : 넓침(개별통지하고 일련장소에 비치함)

4. 보상계획 열람 : ① 열람장소 : 전남 진도군 연동리 1023-9 “팽목마을회관”(전화 : 061-544-8678)  
②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08. 3. 11 ~ 2008. 3. 26

5.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구 분 일 자 주 요 내 용

김정평가 2008. 3. 27 ~ 2008. 5. 31 평가대상 :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의 팽목항 건설공사 따른 어업(관) 피해영향 조사결과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 보상기준일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어업면허, 허가 및 신고필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보상액 산정 및 통보 2008. 6. 1 ~ 2008. 6.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기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산출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2008. 6. 11 ~ 2008. 7. 20 보상 협의는 권리자 개인 및 어촌계(마을어장에 한함)별로 손실보상협의 요청서(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의 서면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상비 지급청구 및 지급 날짜 2008. 6. 11 ~ 2008. 7. 20 보상금 지급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가 완료되면 청구자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여 보상금 지급의무가 종료 됩니다.

①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보상 대상자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하며 주소나 거소를 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농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보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보상업무대행기관인 한국농촌공사에서 처리 합니다.

2008년 3월 7일

사업시행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보상업무대행자 한국농촌공사 사장

## 진도 팽목항 건설사업 보상대상 열람조서

### 1. 면허어업

어업권자	양식률	면허(허가)번호	면허(허가)기간	점용면적(ha)	어장위치
팽목어촌계 / 서망어촌계	다시마, 미역	진도양식 제1054호	2002.10.01 ~ 2012.09.30	15	임회면 팽목리
서망어촌계	미역	진도양식 제1053호	2002.10.01 ~ 2012.09.30	7.8	임회면 남동서망
심동어촌계	롯	제 1종양식 제1027호	2003.04.03 ~ 2013.04.02	10	지신면 심동리
심동어촌계	해조류, 게, 패류, 해삼	마을공동어업 제2053호	2004.04.19 ~ 2014.04.18	42	지신면 심동리
서망어촌계	해조류, 게, 패류, 해삼	공동어업 제2062호	2004.04.19 ~ 2014.04.18	40	임회면 서망리

### 2. 허가어업

#### 2-1. 구획어업

어촌계	어선명	선주명	톤수	어업명/허가번호	비 고
팽목어촌계	미안2호	이기록	0.87	각안(06-05)	
서망어촌계	박종숙	박종숙	0.67	각안(06-46)	
팽목어촌계	광진영	김진영	0.88	낭장랑(07-108)	
광진영	김진영	김진영	0.88	낭장랑(07-110)	
광진영	김진영	김진영	0.88	낭장랑(07-111)	
광진영	김진영	김진영	2.76	낭장랑(07-109)	
금용호	전금용	전금용	1.32	낭장랑(06-43)	
금정호	박정민	박정민	2.26	낭장랑(05-174)	
금정호	박정민	박정민	2.26	낭장랑(05-175)	
민선호	박정민	박정민	1.81	낭장랑(06-166)	
선진호	서연재	서연재	0.73	각안(06-2)	
세운호	이지종	이지종	1.60	낭장랑(07-58)	
세운호	이지종	이지종	1.60	낭장랑(05-182)	

#### 2-2. 연안 어선어업

어촌계	어선명	선주명	톤수	어업명	비 고




<tbl\_r cells="6" ix="4" maxcspan="